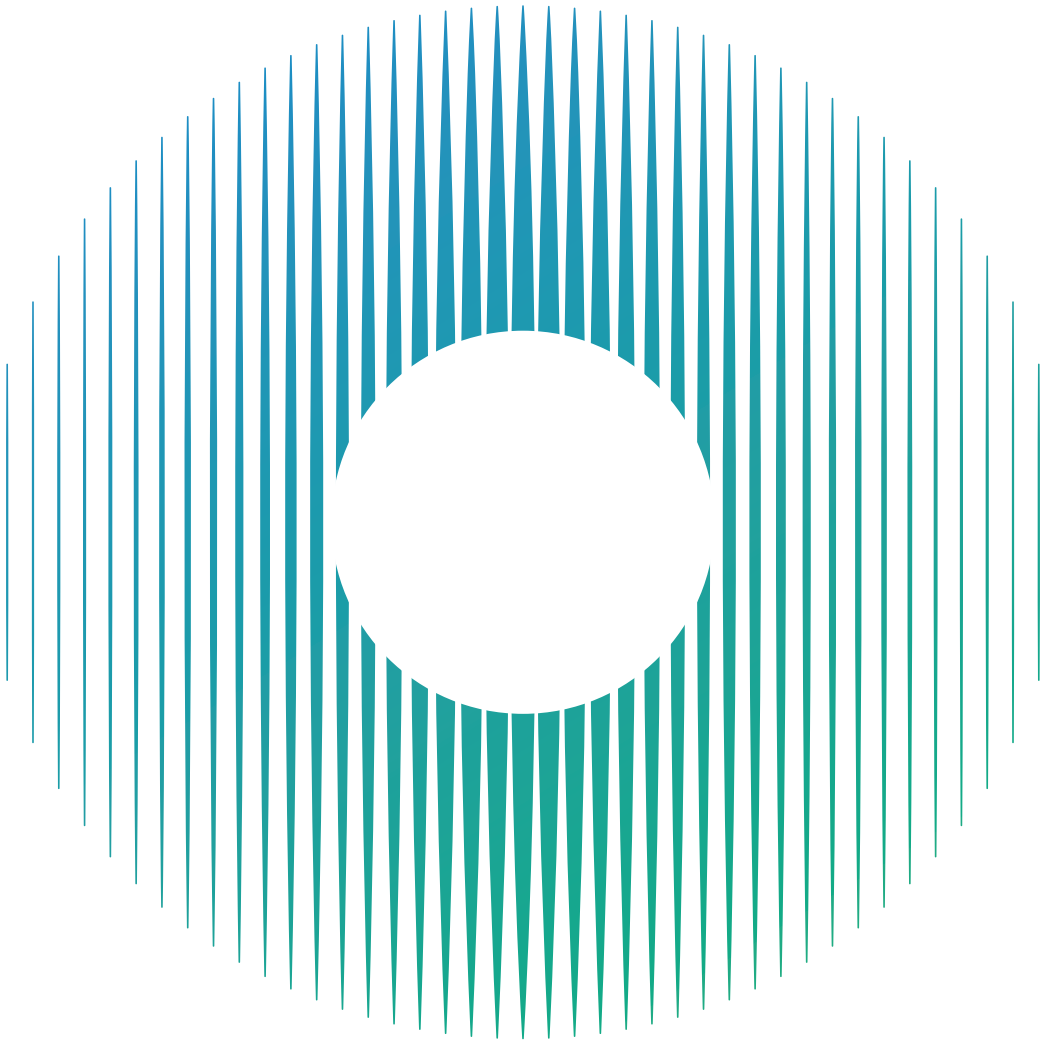
금융산업공익재단 insight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2025년, 8월. vol. 04(격월간)

「제2회 사업공모전」기념 특집호



금융산업공익재단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8. 1.(금) -
8. 29.(금)

지원규모
총 33억원

2025년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공모전

은행권 중심 33개 금융기관 노사 공동 출연 공익재단

지속가능한 사회, 따뜻한 금융이 함께

공모주제

❶ 지금 함께, 보듬다 **'포용금융'**
· 제도권 밖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금융' 사업
·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교육' 사업 등

❷ 지금 함께, 만들다 **'일자리'**
·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 등

❸ 지금 함께, 꿈꾸다 **'미래세대'**
· 젊은세대를 위한'기반조성(기후변화, AI 환경 등)'사업
·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청년'사업 등

❹ 지금 함께, 나누다 **'지역상생'**
·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자조를 돕는 사업

참가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등으로 응모 사업을 직접 수행할 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등

접수방법 www.contestkfif.com로 접수

사무국 02-2039-5186, 5187, 5189, 5196

금융산업공익재단
Financial Industry Public interest Foundation

금융산업공익재단 INSIGHT
2025년. 8월. vol. 04(격월간)
–「제2회 사업공모전」 기념 특집호

행복한 대한민국,
금융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발행인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발행처 금융산업공익재단 정책연구회
발행일 2025년 8월 14일
제작 ㈜현대아트컴

CONTENTS

이슈 노트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의 방향
차경욱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

사업 소개

중학생 메타버스 금융교육 '네고티움'
(수행기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테마 칼럼 1

재단의 「제2회 사업공모전」에 붙여
추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상임이사

테마 칼럼 2

실생활에도 입시에도 도움 주는 경제교육
이옥경 사단법인 '밥일꿈' 이사장

테마 칼럼 3

청소년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마중물
이복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팀장

※ 본 금융산업공익재단 INSIGHT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정책연구회의 순수 연구활동을 통해 발간되는 보고서로서 재단 정책 및 사업 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의 방향

차경욱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

1. 서론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금융환경의 변화, 저금리 기조,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복잡화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인구학적 변화는 개인의 생애 재무설계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해야 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이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부각되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낮은 금융역량이 금융소외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역량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금융이해력, 금융역량과 금융교육

OECD(2020)의 정의에 따르면,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개인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의사결정을 하고, 궁극적으로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지(awareness),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와 행동(behavior)의 조합이다. Lusardi & Mitchell(2014)은 금융의사결정과 금융활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금융지식과 기술 수준 및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이해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술이나 행위 등 실천적 영역을 포괄한다.

이에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은 크게 다르지 않은 뜻으로 사용된다. World Bank(2013)에서는 주어진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소비자가 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해력(knowledge·literacy),

태도(attitude), 기술(skills)과 행동(behavior)을 금융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역량은 금융지식, 태도,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것에 더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은 이러한 금융이해력, 금융역량을 함양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재테크나 투자, 금융상품 등과 관련된 단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금융교육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금융교육의 목표는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건전한 금융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금융교육은 개인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에 따른 과업을 달성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환경과 시장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재정적 통제력을 갖고 금융책임(financial obligations)을 다하면서, 금융 웰빙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personal financial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지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3. 해외 주요국의 금융교육 추진성과

해외 주요국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금융교육을 사회 안전망으로 인식하여 국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정부기구를 설치하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공감하였고, 장기적·체계적인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과 국가전략을 재정비하였다.

OECD는 2008년 금융교육 전담 기구인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를 설치하고 선진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OECD, World Bank, G20 등 국제기구는 금융포용 측면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학교를 통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국제협력과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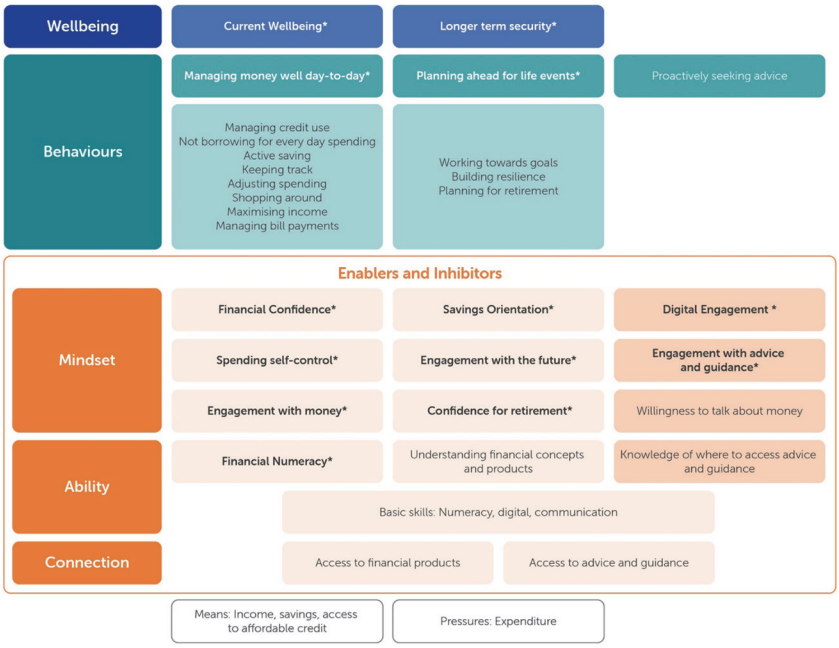
영국은 2003년과 2006년에 금융교육 국가전략을 발표했으나 구체적 추진전략이 부족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2012년 금융교육 전담 기구인 Money Advice Service(MAS)를 설립하였고, 2014년에는 학교 교과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하였다. 2019년에는 국민의 연금관리 역량을 강조하는 가운데, 연금 관련 기관과 MAS를 통합하여 Money and Pension Service(MaPS)를 출범하였다. 영국의 금융교육 국가전략은 2015년 'Financial Capability in the U.K'(10년 계획)를 통해 8개 주요 영역별 금융역량 개선 과제를 수립했고, 2020년에는 'The U.K. Strategy for Financial Wellbeing 2020-2030'을 수립하여 금융역량의 개념을 금융 웰빙으로 확장하였다. 2020년 국가전략은 각 어젠다별로 대상, 목표, 성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그림 1],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및 디지털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였다.

[그림 1] 영국의 금융 웰빙을 위한 국가전략: 2020-2030

* 출처: https://moneyandpensionsservice.org.uk/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Financial Capability 성과 프레임워크는 궁극적 목적을 개인의 웰빙으로 설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웰빙을 향상시키는 재무행동, 태도, 지식을 금융역량의 주요 성과로 삼고 있다[그림 2]. 특히 태도(mindset)의 함양을 금융교육의 핵심성과로 강조하는데, 이는 금융교육이 지식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자기통제와 관여, 신념, 미래지향적 사고 등을 함양함으로써, 개인의 재무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2] 영국의 금융역량 성과 프레임워크



* 출처: https://www.fincap.org.uk/en/articles/adults-outcomes-framework

● 미국

미국은 2002년 재무부 내 금융교육국을 설치하였고, 2003년 금융이해력 및 교육 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여 가정-학교-직장-지역을 연계하는 평생금융교육 체계를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설립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U.S.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를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금융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2020년부터는 디지털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FLEC(www.mymoney.gov)와 CFPB(www.consumerfinance.gov)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학습자료, 디지털 금융교육 툴킷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 디지털 금융사기 관련 교육 등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일찍이 금융교육이 의무화되었다. 1990년 중·고등 교육과정에 금융이해력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고, 2012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포함되었다. 2014년에는 금융교육과 더불어 소비자교육을 강화했고, 교과통합, 방과 후, 학교 밖 금융교육도 확대하였다. 2020년대에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3년 국민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금융교육운영위원회(FESC: Financial Education Steering Committee)를 설치했으며, FESC 주도로 전 국민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Money SENSE'를 개발했다. Money SENSE(www.moneysense.gov.sg)는 정부 주도하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실용성, 신뢰성, 최신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현금관리, 보험, 투자, 은퇴설계 등 영역별로 기초부터 응용 개념까지 단계적·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동영상, 쇼폼, 문서, 워크시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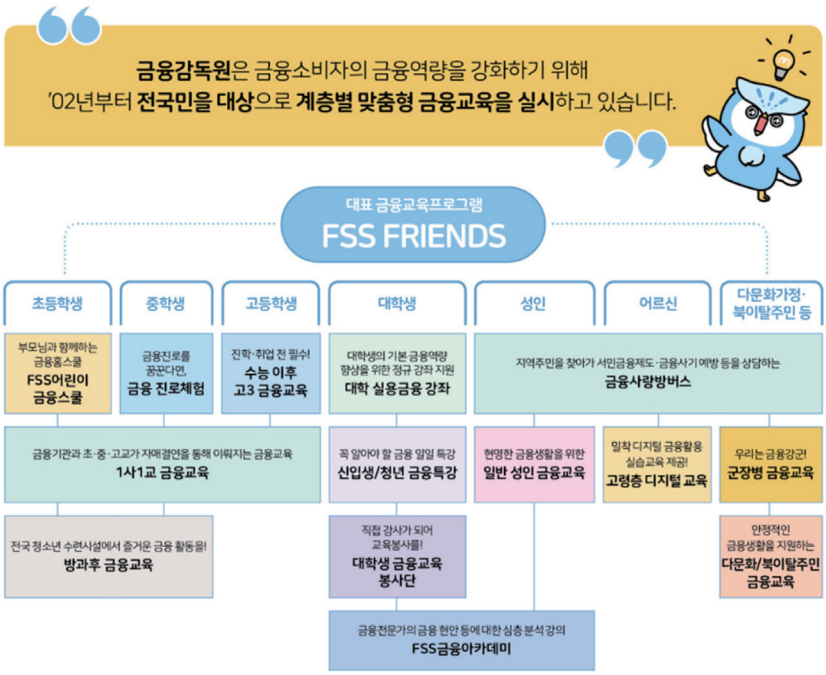
4.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추진성과

우리나라는 2013년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2015년 '소비자중심의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국가의 금융교육 지원(제30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법에서는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교육과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는 시책 수립, 금융역량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금융교육협의회를 법정기구로 개편(제31조)하였다. 또한 2020년 5월 금융교육 개선 기본 방향을 통해 금융교육의 콘텐츠, 전달 채널, 교육인력, 교육방식, 학교교육, 추진체계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금융위원회, 2020).

2023년 금융교육 추진 방안은 생애주기별 특성 및 핵심 금융역량을 고려하여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금융 웰빙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금융위원회, 2022). 대상을 아동·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특수계층으로 나누고 내용과 방식을 맞춤형으로 제시하였으며, 연구조사 기능 강화, 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등을 명시하였다.

이후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범정부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여 참여형,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교육(가상자산, 온라인 투자, 디지털 금융사기 등) 및 디지털 금융소외계층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3]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 출처: www.fss.or.kr/edu/

5.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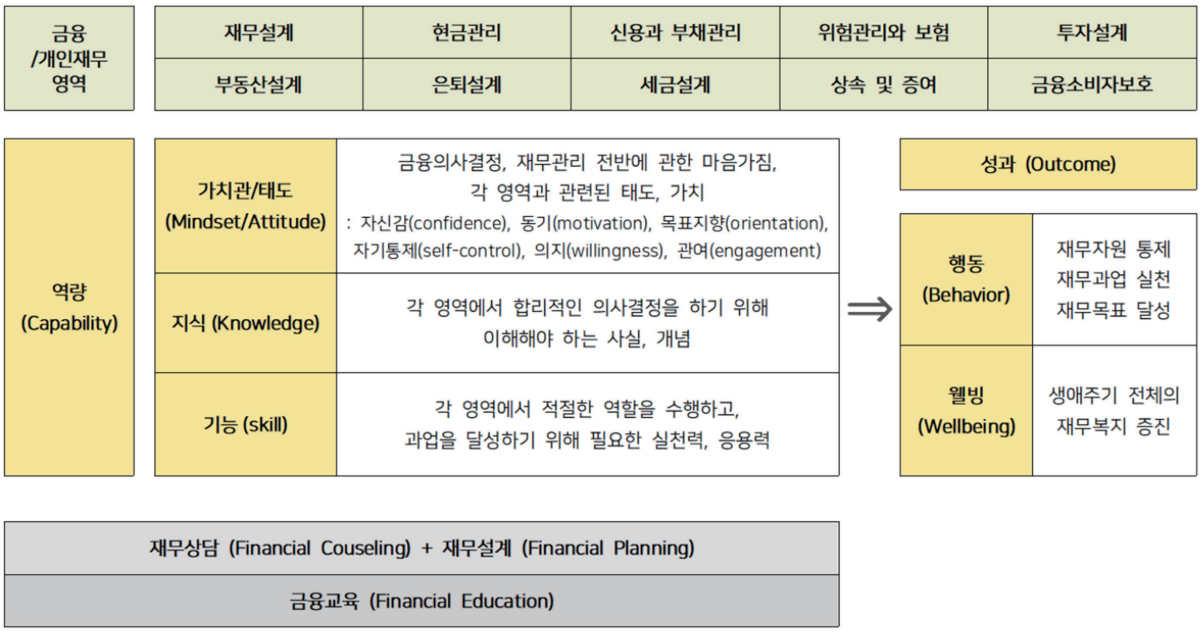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단편적 정보 전달을 하는 일회성 교육이 반복되어 교육의 체계성이나 연속성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또한 민간의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며 양적 성장을 거두었지만, 콘텐츠, 전문 인력, 교육 채널 등의 측면에서 편차가 커 균형 있는 질적 성장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의 영역을 표준화하여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설정하며,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교육의 대영역은 재무설계의 기초, 현금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설계, 부동산설계, 은퇴설계, 상속과 증여, 세금설계, 금융소비자보호로 나눌 수 있다. 금융역량은 가치관·태도, 지식, 기능으로 구분하되,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준거기준을 설정한다. 금융역량의 제고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는 재무자원을 통제하고, 재무과업을 실천하며,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정한다.

또한 금융교육을 재무상담, 재무설계와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은 금융소비자가 당면한 재무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이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는 생애주기에 걸쳐 재무자원을 관리하고 증대하여 중·장기적인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당면한 문제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즉 재무문제 해결 이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이 스스로 생애 재무설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역량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맞춤형 로드맵을 구성한다면 교육의 참여도와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구되는 성취 역량 수준(초급, 중급, 고급)에 따라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안)



6.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제언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 있는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교육의 장기목표, 방향, 필요역량, 교육인력, 전달체계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연속성 있게 수립,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단기 지표 설정, 기간별 로드맵 마련,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교육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교육대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틀, 즉 표준체계가 명료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 표준체계를 바탕으로 교육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표준체계의 핵심 내용을 반복하고 심화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경험확대법을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융교육 전담 기구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성과목표 설정, 교육 프로그램의 중복 해소, 신뢰성 있는 콘텐츠의 효율적 전달 및 배분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주도로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 관리, 제공하며 공공 플랫폼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자기주도형, 체험형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공공-민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디지털 기술 활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 평가와 환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콘텐츠 검증을 위한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기관과 강사의 자격과 질을 평가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금융위원회(2020). 「금융교육 개선 기본 방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05.01.)
2. 금융위원회(2022).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융교육 추진방안」.
3. Lusardi & Mitchell(2014). The economic importance of financial literacy: Theory and evidence. *American Economic Journal: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2(1), 5~44.
4. OECD(2020). OECD Recommendation on Financial Literacy. OECD/LEGAL/0461.
5. World Bank(2013. Aug). Why Financial Capability is important and how surveys can help. *Financial Capability Surveys Around the World.*

중학생 메타버스 금융교육 ‘네고티움’

수행기관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금융교육 ‘네고티움(NEGOTIUM)’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금융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방식을 도입한 메타버스 기반 금융교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실제와 유사한 게임 환경에서 자산관리, 금융사기 예방, 신용관리, 금융상품 활용 등의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금융 자립을 위한 실질적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 2022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메타버스 금융교육 콘텐츠는 2023년 완성했고, 같은 해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 효과성과 현장 반응을 확인한 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수행기관으로 운영하며, ‘네고티움’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메타버스 안에서 경제활동과 금융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네고티움’에서 학생들은 공방을 운영하며 물품을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거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생산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을 구입하고, 때로는 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융사기 정보를 식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실제 경제 원리를 반영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산 증식과 소비, 신용관리, 금융사기 대응 등을 실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육 효과 분석에 따르면, 교육을 수료한 학생 중 82%는 경제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89%는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메타버스 기반의 게이미피케이션 교육이 기존 이론 중심 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금융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 현재, 본 사업은 서울시 관내 52개교, 260학급 규모로 운영 중이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교육의 실질적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지역과 교육 대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네고티움'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고 경제적 자립 역량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금융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들의 세계 속으로 다가간 이 교육은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재단의 「제2회 사업공모전」에 붙여

추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상임이사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이 2025년 8월 1일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제2회(2025년도) 사업공모전」을 펼친다.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시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사회, 따뜻한 금융이 함께'를 주제로, 전국 각지의 비영리기구(NGO) 등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일자리, 미래세대, 지역상생 등 4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공익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공모전은 2년 전과 비교해 참가 자격이나 심사 절차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도 있다. 무엇보다 공모 주제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2년 전 공모전은 금융, 복지, 기후위기, 교육, 문화 등 5개 안전망에 걸쳐 사업을 공모한 데 비해, 이번 공모전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지원사업 분야를 4개 키워드로 압축하여 공모에 나서게 된 것이다.

우선 '포용금융' 영역은 재단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분야로 꾸준히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분야다. 주로 제도권 밖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금융사업과 소비자 보호, 금융 교육사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 선정 시에는 현재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생애주기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나 다른 금융권 공익재단 등의 기존 사업과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힘쓸 것이다.

'일자리' 영역 역시 재단의 설립 목적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기에 늘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 발굴이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돕고 청년들의 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제안이라면 적극 수용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환영하며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깊은 취업 연계사업 등도 기대하고 있다.

'미래세대' 영역은 청소년이나 청년 등의 미래를 위한 각종 기반 조성사업과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젊은이를 위한 사업이 대상이 될 것이다. 요즘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AI 환경 구축이나 기후변화 관련 사업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사업 등이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지역상생' 영역은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과 자조를 돕는 사업이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각고의 노력 끝에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등이 시사하는 것처럼 결코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많은 국민,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달프다. 다만 이 영역은 다른 곳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제안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

이상 네 가지 분야 제안은 사업대상 지역에 있어서 국내외 제한이 없다. 하지만 단순 현금성 지원사업은 배제하고,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 재단은 이번 사업공모전에 약 3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2년 전(50억 원)에 비해 다소 줄어든 금액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액을 고려하면 재단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참고로 재단은 지난해(2024년)에만 37개 사업에 약 120억 원이 넘는 순수 사업비를 지출하여 금융 및 사회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밝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재단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33개 금융기관 노사가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산업 단위 노사 파트너십 사회공헌재단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훌륭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를 실현할 마땅한 수단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NGO 등 사업 수행기관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만 다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 지원을 신청한 기관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성원과 신뢰에 보답하려고 한다.

이번 공모전이 사람과 미래가 보이는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서 재단과 사업 수행기관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전국 각지의 뜻있는 기관과 봉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5.08.01.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실생활에도 입시에도 도움 주는 경제교육

이옥경 사단법인 '밥 일 꿈' 이사장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서로 독침을 쏘아대며 끝장으로 달려가는 부부, 미성년에 임신하고 부모가 됐는데 대책 없이 사는 아이들 등의 일상이 자극적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다. 그들의 문제성 있는 행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어떻게든 살아보려 애쓰는 인물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대개 한쪽은 책임감 없이 '오늘만' 살고 있다. 문제해결은 더욱 멀어지고 불신과 다툼이 일상인 삶을 사는 커플들이 많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 서로 소통하며 공감을 나누는 대화법,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저들에게 맞춤형으로 꼭 제공됐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든다. 나아가 어릴 때부터 생활인으로서 이러한 기본적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사회의 손실을 막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일임을 새삼 느낀다. 각 분야의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전 세계적 경쟁시대에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 가르침에는 전방위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경제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대체로 '경제관념'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더욱 관계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밥 일 꿈'이 수행하는 사업의 행사에서 나는 항상 '밥 일 꿈'이라는 조금은 생소하고 촌스러운 느낌의 이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설명한다. 밥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다. 그 밥을 위해 일을 하되 하고 싶은 일이 되게 하자는 것이 일의 의미이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밥과 일은 의미 없는 일상이 된다. 이 셋의 조화가 개인과 우리 사회의 지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일신문 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비영리법인이 사단법인 '밥일꿈'이다. '밥 일 꿈'이 하는 사업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더운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운 한국의 겨울을 따뜻하게 나도록 외투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이웃을 위한 외투 나눔(첫겨울 나눌래옷)' 사업이 있다. 아직 멀쩡하지만 싫증 났거나 체형이 변해서 못 입는데 버리기에는 아까운 겨울옷이 어느 집에든 있을 것이다. 여러 기관, 학교, 아파트 자치회 등과 협력해 이런 옷들을 기부받은 후 국내 유수의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에 의뢰해 깨끗이 세탁하고 수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근년 들어서는 1만 벌 이상을 전달하고 있다. 초기에는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 옷을 진열하고 오프라인 행사로 전달했지만 이제는 홈쇼핑처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주문 방식으로 외국인 이웃이 고른 외투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있다. 올해로 7회를 맞아 우리의 마음을 나눔으로써 외국인 이웃과의 거리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다문화 축제로 발전하고자 한다.

한편,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사다리를 놓는 '사다리 교사단'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했다. 사교육과 입시정보 등 진학지도 서비스의 소외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그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해 놓은 제도의 존재는 물론 활용방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다리 교사단은 자발적으로 한 학생의 멘토가 되어 그 아이들이 이 제도가 제공하는 기회의 문을 찾아 꿈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 함께하는 교사들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왕복 세 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 찾아가는 선생님도 계신다. 참여하는 선생님들이야말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분들이다. 사다리 교사단 사업은 이제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경제교육으로 돌아와 보면 100세 시대에 어린 세대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일은 어른 세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고교생 시기에는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금융은 늘 가까이 두고 잘 활용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유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2년 차를 맞은 고교 금융교육 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중요한 이슈인 연금을 주제로 연금의 구조를 알고 자신의 연금 설계를 해보는 방식은 금융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에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금융교육을 고교 정규수업에서 시도하는 이 사업은 그 사례가 없는 첫 시도였다.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주신 전문가들, 자발적으로 모인 40여 개 고교 선생님들, 그리고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지혜를 모아 출발했지만 당연히 중간중간 시행착오와 난관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참여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연대를 맺어 교육 방법을 공유하며 내용을 더 알차게 채워 주셨다. 그 결과 대학입시에도 도움이 되면서 실생활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수업'의 소중한 사례로 발전하고 있다. 금융인식을 전 사회 구성원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강조하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도, '밥 일 꿈'을 강조하는 우리에게도 잘 맞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재단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평범하고 건강한 시민이 우리 공동체의 기반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를 소망해 본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5.05.19.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마중물

이복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팀장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금융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각층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가 공포되고 고등학교에서는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목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소년기 금융교육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올바른 금융 습관은 성인이 되어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경제·금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되며, 건전한 경제·금융생활을 영위할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발맞춰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다양한 경제·금융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키트(KIT)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과 금융교육용 뮤지컬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재미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잡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용돈을 관리하는 습관, 균형 있는 소비와 저축,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 기초적인 경제 개념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지식을 배워 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메타버스를 활용한 '네고티움' 교육은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해 가상세계에서 금융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높은 몰입도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2021년부터 꾸준히 지속한 경제·금융교육은 누적 교육 인원이 132,243명에 달하며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체험형 교육 86.8%, 금융교육 뮤지컬 97.3%, 메타버스 금융교육 90.0%로 매우 높다. 특히 지원한 초등학교의 20% 이상이 교육복지 거점학교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중학교는 과대·과소 학교를 우선 선발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으며, 학교 공간 부족과 학생 수에 따른 교육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성과는 재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 콘텐츠의 질이 한층 높아진 덕분이기도 하다. 교재와 교안의 체계적인 업데이트, 학생 1인 1금융키트 제공, 뮤지컬과 메타버스 콘텐츠의 도입은 교육의 몰입도와 실용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나만의 여권 만들기' 금융키트는 세계 각국의 화폐와 문화를 배우며 글로벌 금융 감각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교육 뮤지컬 〈네 꿈은 뭐니〉는 용돈 소비 방법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주며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메타버스 금융교육 '네고티움'에서는 예금과 대출, 경제 상황에 따른 금리 변화와 같은 실질적인 금융 개념을 가상세계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여 교육의 현실성을 높였다. 또한 전문 강사 심화 연수는 교육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했다.

재단과의 협력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재단의 금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미래 사회의 경제적 주체가 될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역량을 키워줄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 습관을 심어주는 이러한 활동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빛나는 미래를 펼칠 수 있게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5.03.20.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